타디스 "우승 상금 1억500만원으로 땅 사겠다"

〈남자 국제부 우승〉

2위 아레도 14초차로 제치고 우승 지난해 개인기록 1분 이상 앞당겨 "서울마라톤 모든 코스가 다 좋았다"



암듀오르크 와레 렝 타디스(24·에티 오피아)가 서울마라 톤 우승의 기쁨을 누 렸다.

서울특별시·대한육상연맹·동아일보·스포 츠동아가 주최하고, 문화체육관광부·국민체 육진흥공단 · 서울특별시체육회가 후원한 국내 최고 권위와 역사의 2023 서울마라톤 겸 제 93회 동아마라톤이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 다.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잠실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으로 골인한 이날 레이스에는 해외 엘 리트 30명과 국내 엘리트 71명 등 전문선수 101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뤘다.

남자 국제부 우승은 타디스의 차지였다. 42.195km의 풀코스를 2시간05분27초 만에 주파하며 2위 쉐페라 탐루 아레도(2시간05분 41초)를 14초, 3위 하프투 테클루 아세파(이상 에티오피아·2시간05분53초)를 26초 차이로 제 치고 우승했다. 타디스는 우승상금 8만 달러 (약 1억500만 원)를 거머쥐었다.

타디스는 개인최고기록을 경신하며 기쁨을 더했다. 키 172cm-몸무게 50kg로 왜소한 편 이지만, 에티오피아 전통 빵과 쌀을 꾸준히 섭 취하며 체력을 유지했다. 첫 풀코스 도전이었 던 2021년 암스테르담마라톤에서 2시간07분 48초로 15위에 올랐고, 지난해 JTBC대회에 서 2시간06분59초로 기록을 단축하며 우승했 다. 이번에는 개인최고기록을 1분 이상 앞당 기며 상승세를 입증했다.



에티오피아의 암듀오르크 와레렝 타디스가 19일 광화문광장~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에서 2시간05분27초의 기록으 로 남자 국제부 우승을 차지했다. 개인최고기록을 1분 이상 앞당긴 그는 "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"고 밝혔다. 잠실 |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yohan@donga.com

레이스 내내 선두그룹을 지킨 타디스는 35 km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 다. 아레도, 아세파를 비롯해 4위 올리카 아둥 나 비킬라(에티오피아)와도 경쟁을 피할 수 없었지만, 35km 지점을 1시간44분05초로 가 장 먼저 통과하며 탄력을 붙였다. 40km 구간 에서도 아레도와 격차가 27초로 크지 않았지 만,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며 결승선을 통과

타디스는 "우승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 다"고 밝혔다. 이어 "8년 전 함께 운동하던 친 구들과 달려 1등을 했을 때 '잘한다'는 말을 듣 고 자신감이 커졌다"며 "1등을 하면 선생님께 서 빵을 사주셨는데, 그게 동기부여가 돼 실력 이 늘었다"고 활짝 웃었다.

이번 대회 코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. 타 디스는 "많은 사람들에게 '서울마라톤의 코스 가 좋다'는 말을 듣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. 날 씨가 조금 추웠던 것만 제외하면 모든 코스가

다 좋았다"고 말했다. 이어 "상금으로는 비즈 니스를 위해 땅을 살 것"이라며 껄껄 웃은 뒤 "꾸준히 기록을 앞당길 것이다. 앞으로 더 유 기는 게 목표"라고 다짐했다.

잠실 | 강산 기자 posterboy@donga.com

마스터스 남녀 우승자 인터뷰

"최고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 영광"

●남자 마스터스 우승 로버트 허드 슨(36)= "최고 대회에서 개인 최 고기록(2시간24분15초)으로 우승 해 영광이다. 기분이 최고다. 스 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



절부터 축구, 달리기 등을 좋아했다. 2015년 부터 풀코스를 시작해 이듬해 국내외 각종 대 회에 출전하기 시작했다. 풀코스 완주는 20여 번 정도 된다. 2017년 전북 군산 지역대회에 서 처음 우승했다. 한국에서는 영어강사로 일 한다. 매주 140~150km를 뛰며 체력을 관리 하고 있다. 뛸 때마다 훈련일지를 작성하며 잘 뛰는 법을 독학한다. 앞으로 참가하는 대회마 다 즐겁게 뛰고 싶다."

"체계적인 훈련 통해 올림픽 도전 꿈"

●여자 마스터스 우승 웡 척닝(21) = "취미로 시작한 마라톤을 이제 는 직업으로 삼고 싶다. 홍콩에서 태어나 동아마라톤대회만 3번째 참가했다. 쉽게 참가할 수 없는



플래티넘 라벨의 대회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참가를 해왔다. 2주 전에 다리에 부상 을 입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1위를 해서 정말 기쁘다. 앞으로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세계무대에 도전하겠다. 빠르게 명해지고 싶고, 올림픽 같은 더 큰 대회에서 이 는 2024 년의 파리, 적어도 2028년 로스앤젤 레스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다."

편집 | 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

국가보훈처가 2023서울마라톤에서 6.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'Amazing70' 행사를 펼쳤다. 서울마라톤 출 발점인 광화문광장에서 6.25 참전국인 에카테리니 루파스 주한 그리스대사와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, 국 가보훈처 박민식 장관(왼쪽부터)이 'Amazing70' 행사를 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.

'6.25 정전 70주년' 등번호 달고 뛴 서울마라톤

'유엔군 희생과 헌신 기억' 현수막 눈길 국제부 1~3위 그리스 특별 메달 증정 보훈처 장관 "22개 참전국 고마움 담아"

'대한민국은 UN군 참전 22개국의 희생과 헌 신을 기억합니다.'

2023 서울마라톤 겸 제93회 동아마라톤에 특 별한 행사가 열렸다. 이번 대회에 참가한 3만 80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은 6.25전쟁 '정전 70 주년 엠블럼'이 부착된 등번호를 달고 서울의 봄 거리를 달렸다. 국가보훈처가 정전 70주년 을 맞아 전쟁의 상처와 평화통일의 염원을 되 새기기 위해 펼치고 있는 'Amazing70' 행사 중하나다.

국가보훈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6.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알리 는 동시에 당시 참전해 한국을 도운 유엔 소속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았다. 엠블럼은 약 22도 기울어진 숫자 70을 통해 유엔 22개국 용사들을 향한 묵념의 메시지를 전했다. 엠블 럼 위에는 '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 년'이라는 문구를 적어 의미를 더했다.

출발점인 광화문광장과 도착점인 잠실종합 운동장에는 '대한민국은 UN군 참전 22개국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합니다'라는 문구와 함께

22개국 국기가 그려진 현수막이 새 봄의 거리 를 수놓았다.

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국제부 1~3위에게 수 여한 '특별한 메달'이었다. 그리스에서 공수해 온 이 이 메달은 2010년 그리스육상연맹이 마 라톤 기원 2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 다.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와 전쟁 당시 마라 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km를 달려 승전보 를 전한 병사를 형상화해 메달에 담았다.

이 메달은 이날 에카테리니 루파스 주한 그 리스대사가 국제부 1~3위인 암듀오르크 와 레렝 타디스(2시간05분27초)~쉐페라 탐루 아 레도(2시간05분41초)~하프투 테클루 아세파 (2시간05분53초·이상 에티오피아)에게 수여 했다.

에카테리니 루파스 대사는 "마라톤 종주국 인 그리스에서 메달을 제작하고, 수여해 큰 영 광이다. 6.25전쟁 참전국인 그리스가 정전 70 주년 행사에 참여해 더 기쁘다"고 말했다.

국가보훈처 박민식 장관은 "Amazing70을 통해 모든 참가자와 시청자들이 6.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22개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기억해주길 바랐다"며 "서울미라톤에 동참한 덕분에 한국이 지난 70년간 눈부시게 발전한 점도 널리 알릴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"고 밝혔다. 잠실 | 권재민 기자 jmart220@donga.com

